

정읍시 주민숙원사업 자체 설계단 운영

토목직 공무원 4개반 15명 구성
예산 3억원 절감하고 신속 집행
200여건 내년 2월 15일까지 완료

지역의 소규모 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처리할 설계단이 뜬다.
정읍시가 내년도 지역개발사업의 조기 발주와 신속 집행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단'을 운영한다.
주민숙원사업 합동 설계단은 건설과장을 총괄

단장으로 시설(토목)직 공무원 4개 반 15명으로 구성했다.
설계단은 12월1일부터 내년 2월15일까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을 비롯해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총 200여 건 22억원 규모에 대한 자체 실시설계를 맡게 된다.
한발 앞선 합동 설계단 운영을 통한 재정 신속 집행으로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한다는 취지다.
시는 12월 말까지 대상 사업에 대해 현지 조사와 측량을 마무리하고 내년 2월15일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후 2월 중 일제히 공사를 발주·착공해 내년 농번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번 합동 설계단 운영을 통해 약 3억원의 용역비 예산 절감 효과는 물론 시설직 공무원 선후배 간의 설계기술 전수와 업무연찬을 통해 신규 임용된 새내기 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합동 설계단 운영으로 예산 절감은 물론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상반기 사업의 재정 조기 집행과 발주로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를 꾀하겠다"고 밝혔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공과금 납부까지...시골 찾아가는 마트 트럭

정읍시·샘골농협 '행복 장터' 발대식

정읍시와 샘골농협이 교통환경이 열악한 시골 주민들을 위해 생필품을 싣고 마을을 돌아다니는 마트 트럭을 운영한다.
정읍시와 샘골농협은 26일 정우면 샘골농협 광장에서 '찾아가는 행복 장터' 1호점 발대식을 가졌다. <사진>
'행복 장터'는 농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공헌을 위해 추진하는 지자체와 농협의 협력 사업이다.

개조한 3.5t 마트 트럭은 시골 곳곳을 돌며 생필품과 로컬푸드를 판매하고, 공과금 수납기를 활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차량에 부착된 전광판을 통해 각종 교통·생활 정보를 알리고 지역 대표 축제, 관광자원, 코로나19 상황 등도 홍보한다.
주민들은 생필품을 다른 마트와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다.
예산은 정읍시가 4900만원을, 농협이 1억3400여만원을 각각 부담했다. 시와 농협은 희망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남원시-관광협회 코로나 시대 관광 활성화 방안 모색

여행업체 등 초청 설명회

여행환경 변화 대응력 향상 주문

남원시와 남원시관광협회가 관광 환경 변화 대응력 향상 방안 마련에 주력하고 있다.
남원시와 관광협회는 최근 남원컨벤션리조트 중연회장에서 한국스마트관광협회의와 여행업체 등이 참여하는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설명회에서는 홍보문화관 등 남원의 명소를 둘러보는 팸투어를 시작으로 전문가들이 발제자로 나서 코로나 이후 관광사업 변화에 따른 지역의 여행상품 특성과 모델 등을 제시했다.
양인환 남원시 관광과장은 지역이 가진 관광 경쟁력과 잠재력을 소개하며 1970년대 광한루원부터 오는 2022년까지 진행되는 모노레일, 질라인 등 레저시설 및 리플러스사업, 각종 통계자료를 토대로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한국스마트관광협회에 소속된 8개사에서 '남원형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관광객 유치전략 및 지역관광 모델방안' 등을 각각 제안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이영근 한국스마트관광협회의 회장은 '데이터 기반의 스마트관광 분석 및 사례'를 제안했다.



남원시와 관광협회는 최근 남원컨벤션리조트에서 한국스마트관광협회의와 여행업체 등이 참여하는 관광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남원시 제공>

한복남의 박세상 대표는 한복문화도시 남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복관광 활성화'를 제시했으며, 민지연필름의 김민철 대표는 '유튜브 채널을 활용한 남원 관광 홍보 방안' 등을 제시했다.
스토리발견연구소 김남경 대표가 '남원 여행콘텐츠 활성화방안'에 대해 제안했고, 스텝존 전용식 대표가 '지속가능한 관광콘텐츠 트래블 스텝'

등을 제안했다.
남원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변화된 관광객 유치전략 및 지역관광 모델방안을 찾기 위해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면서 "다채로운 제안들이 많이 도출된 만큼 남원관광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는데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순창군 내달 2·9일 청년 마음건강교실

순창군이 스트레스 해소는 물론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청년 마음건강교실을 다음달 2일과 9일 두 차례에 걸쳐 운영한다.
순창군 치매안심센터 교육실에서 열리게 될 이번 건강교실은 사전 우물 선별검사 후 마음회복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삼파마 등 방향제 제품 만들기를 통한 아로마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아울러 마음건강을 위한 일상상담도 병행한다.
앞서 군 보건의료원에서는 군민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해 아동이나 청소년 및 중년여성을 위한 우울 예방 마음건강교실 외에도 경로당 웃음치료교

실 등 생애주기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해 호평을 받고 있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맞춤형 관리를 통해 군민의 정신건강 증진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참여 대상은 순창군에 거주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전화(063-650-5318)로 접수하면 된다.
정영근 순창군 보건의료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우울감에서 벗어나 마음 건강에 대한 이해와 스트레스 해소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정양근 기자 jyg@kwangju.co.kr

고창군 '도시의 생태, 생태적 도시' 전시회

고창군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자연생태와 인간의 공존을 주제로 한 전시회를 연다. <사진>
고창군에 따르면 군립미술관 신축과 지역 문화예술 부흥을 위한 '2021 유네스코 고창 생태 미술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방위로 작동하는 예술의 순환... 도시의 생태, 생태적 도시'란 이름의 전시회가 오는 30일까지 군립미술관 일원에서 펼쳐진다.
이번 전시회는 고창으로 이주한 문화기획자 안민영 씨와 예술가 김현승 씨가 공동 예술감독을 맡았으며, 문화예술기획사 '일육팔'과 고창출신 김준우 외 4인의 작가가 함께 기획했다.
'의, 식, 주, 관개, 에너지' 등 5가지의 소주제가 바탕이 된 이번 전시를 위해 감독과 기획자들은 고창에서의 삶을 토대로 자연과 인간 모두가 공존하며 조화하는 길을 모색하려 노력했다.
피상적인 자연생태의 관념에서 탈피하려는 시도, 인간의 삶과 밀접하게 관계하는 자연과 미래



환경문제에 대한 실증적 고민 등을 느낄 수 있다.
고창군 관계자는 "이번 생태 미술 프로젝트의 진행은 추진 중인 군립미술관 신축사업의 주요 콘셉트 구축에 토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와 함께 오는 12월7일 문화의 전당에서는 생태미술과 미술관 건립-운영을 주제로 종합포럼이 열릴 예정이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익산시, 산모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90% 지원 신생아 돌봄도 건강관리사 제공

익산시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90%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임신·출산 분위기를 장려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개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방문해 산모 건강관리, 신생아 정결 관리 및 돌봄 등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 서비스는 이용 가구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산모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중 15일 기준 본인부담금의 90%를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올해 7월 30일 이후 출생아 가정 중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완료하고 본인부담금 신청 시점까지 산모의 주소지가 지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있는 가정이다.
또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도 지역에 등재돼 있어야 한다.
신청 기간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2개월(60일) 이내에 해야하며, 신청 방법으로

는 보건소에 방문 제출해야한다.
구비서류는 본인부담금 신청서, 산모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산모 통장 사본, 본인부담금 영수증을 제출하면 지원금은 신청 후 다음 달 20일 이내 입금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본인 부담확대지원으로 가정 내 산후조리 기간 내 출산가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임신과 출산, 돌봄까지 이어지는 육아지원 정책을 앞으로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꽉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